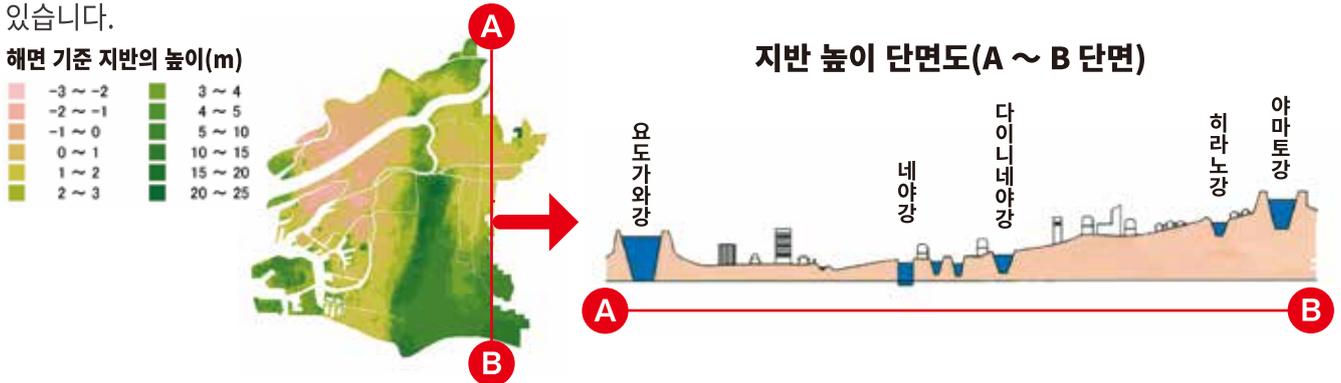


제 2 장

풍수해에 대비한다

● 오사카시는 수해에 취약한 지형

오사카시에는 많은 강이 흐르고 있어 에도 시대에는 「나니와 팔백 팔 다리」로 불리는 등 물의 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야요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시 영역의 절반 정도가 바다였고 내륙지역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성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시가지가 낮은 지역, 수해에 취약한 지형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태풍은 7월부터 10월에 걸쳐 일본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오랜 시간동안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립니다. 또한, 태풍이 접근하여 기압이 낮아지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높아진 해수면이 강풍에 의해 해안으로 밀려들면서 해일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 최근에는 한정된 지역에서 단시간에 내리는 이른바 게릴라성 호우나 몇 시간에 걸쳐 거의 같은 장소에 비가 계속 내리는 선상 강수대에 의한 침수 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호우는 집중 호우를 초래하는 적란운(소나기 구름)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발달하여 돌발적으로 폭우가 내리며, 선상 강수대는 적란운이 연이어 발생하여 줄지어 선상으로 뻗어나가면서 장시간 폭우가 내립니다.



도시형 수해의 특징

대도시에서는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곳이 많아, 대량의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면 배수처리가 가능한 수준을 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빗물이 맨홀이나 배수구에서 지상으로 넘쳐 지하상가나 지하실이 침수되기도 합니다.

지하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나 시간에 주의하는 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계 단에서 물이 세 차게 흘러내리면 지상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지하 침수가 예상되면 서둘러 대피합니다.

